

롱 숏 운용 안내 사항

1. 운용 프로세스

1) Top-Down과 Bottom-Up 분석의 조화

글로벌 매크로 및 시장 분석

산업 내 메가트렌드 발굴

개별 기업 펀더멘탈 분석

2) Multi Strategy 를 적용, 전략별 비중 조절로 포트폴리오 구성

Fundamental Long-Short

Pair Trading

Quant Strategy

2. 운용 전략

1) Fundamental Long-Short

- 기업의 재무제표와 시장지표에 대한 재무분석 및 가치평가를 통해 매수/매도를 결정하는 전략
- 초과수익(알파) 창출을 위한 기본적 전략
- 리서치, 종목선정 능력과 포트폴리오 운용 역량이 핵심 성공 요인
- 월간 기본적 분석 지표와 기술적 분석 지표를 활용한 Factor Quant Model로 종목을 스크린해서 Pool을 구성. 상위 25%와 하위 25% 종목군을 재차 펀더멘탈 분석 후 Long-Short 기업 선택
- 이종 산업간 Long-Short 을 통해 초과 수익 창출 능력 극대화
- 보조 전략 : Event-Driven (특정 이벤트가 추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수익률을 창출하는 전략)

2) Pair Trading

- 개별 종목 단위가 아닌,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해 업종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전략. 2014년의 경우에도 KOSPI는 횡보했지만, 화장품은 58%로 상승한 반면 조선은 40% 하락할 정도로 업종간 희비는 극명하게 교차. 업종에 대한 분석이 중요
- 업종 담당자는 자신의 업종을 큰 흐름으로 분석해 업종 리서치 MP(Model Portfolio)에 반영. 매주 리서치팀 롱숏 MP 회의를 통해 전체 MP의 성과 및 변동성 체크. 리서치 개인별 MP의 기여도 역시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개인 평가에 그대로 반영. 업종에 대한 베팅 성격을 살리면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해당 업종 대표주에 투자
- 펀더멘탈 Long-Short 전략과는 별개로 운용. MP에 관해서는 CIO 의견을 배제, CIO는 오직 MP의 반영 비중만을 결정
- MP 반영 비중 : 전체 포트폴리오 중 20~40% 내외

3) Quant Strategy

- 정성적인 편향(bias)을 제거한 원칙(rule)에 의한 정량적(quantitative)인 투자 전략. 정성적 전략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정량적 분석을 통해 상호보완
- 퀀트 전략을 독립적으로 운용해 전체 라임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증대(전략 비중 : 전체 포트폴리오 중 20~30% 내외)
- 기업이익과 트렌드를 바탕으로 향후 기대수익률을 전망하는 E.T 모델(자체적으로 고안)을 사용
- 확률적으로 3개월 중 2개월은 시장을 이기는 전략. 시장 변곡점에 추가 설명력은 다소 떨어지나, 평상시에 그 이상의 성과 달성

3. 자체 리스크 관리 지침

1) Gross Exposure

→ Net Index 요건과 Crowd Index 요건을 통해 도출한 적정 Gross Exposure 중 낮은 값을 한도로 보수적인 투자 집행

(1) Net Index 요건 : 사후 보완적 관리 (Net Index에 따라 Max Gross Exposure 한도 설정)

(2) Crowd Index 요건 : 사전 예방적 관리

- Crowd Index란 현재 포트폴리오의 예상 MDD(Maximum Drawdown) 수준을 추정하는 라임투자자문의 퀀트 모델
- 예상 MDD 수준을 바탕으로 현재 누적 수익률을 고려해 최적의 Gross Exposure를 결정할 수 있음
- 디레버리징 리스크(Deleveraging risk, Long/Short 모두에서 손실 발생하는 상황)가 커질수록 예상 MDD가 확대
- 수익률에 따른 전체 포지션 변경 방법에 비해, 현재 포트폴리오의 위험요인만 분석해 부분적인 포지션 변경으로 거래 비용 자체도 줄일 수 있음

2) Net Position : ±10%

3) 종목별 비중 제한 : 레버리지 100%를 기준으로 Gross Exposure의 3.5% 이하 (KODEX 200 예외)

4) 종목수 제한 : 롱숏 각각 30개 이상. 단 신규 계좌의 경우 1주일 간의 예외 고려